

만남

2023년 5월
통권 219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성모성월 기도	-----	3
신앙 나눔	-----	4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	-----	5
소공동체 모임 자료	-----	10
전례 맛들이기	-----	13
영적 상담	-----	16
우리 시대의 성인들	-----	18
축일을 축하합니다	-----	21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22
공동체 소식	-----	23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4
월중 행사표	-----	25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6
미사안내	-----	27

《교황님의 5월 기도지향》

❖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을 위하여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十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엄마의 품 (최영숙 데레사)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결에 예쁘게 피어나는 장미꽃
활짝 웃음 띠우는 아름다운 모습은 엄마 얼굴 닮았고
그윽하게 풍겨오는 달콤한 장미향은 엄마의 품속 같아
장미향기 가득한 엄마품속에 내 영혼을 잠재우고 싶네!

엄마품속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
잉태하신 아드님을 구유에서 낳아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사랑 꽃, 평화 꽃, 은총 꽃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인도하시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라고 불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도 사랑을 심어주신 엄마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도 낳아 길러주신 엄마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도 따뜻한 엄마품속이라네!

계절 중에 가장 맑고 푸른 아름다운 5월 성모성월에는
은총이 가득한 엄마 품에 붉은 장미꽃다발 안겨드리고
발아래 촛불을 밝혀 베푸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면
성령의 불길이 마음속 깊이 타올라 성모노래 부른다네!

아기예수님을 엄마 품에 안고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시신을 엄마 품에 안고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천상 모후의 관을 쓰신 엄마의 품은 지상의 천국이라
하늘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히 영원히 잠들기를 원하네!

배가고파 울던 아기도 엄마젖을 물면 포근히 잠들듯이
삶에 지치고 시달린 자들도 엄마품속에서 쉬게 하시고
영혼이 병들고 메마른 자들도 신비의 묵주로 구하시며
세상을 떠난 이들도 위로하며 엄마품속에 잠재우시네!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60차 성소주일 담화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번째 성소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소 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에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하느님 섭리인 이 계획은 하느님 백성 구성원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오늘날 세상의 고통과 희망, 도전과 성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저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이 성찰하고 기도할 때에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라는 주제를 길잡이로 삼기를 요청합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부르심이 은총이고 온전한 선물이며, 이와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경이롭게 되새기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증언하는 신앙으로, 곧 성사와 교회의 친교에서 체험되듯이 은총의 삶과 세상에서의 우리 사도직을 긴밀히 이어주는 신앙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이끌려 실존적 변두리와 인간의 극적 사건들에 응답하도록 도전받고 사명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더없이 인식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홀로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의 친교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 목자들의 인도 아래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친교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어 오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선택하시어”

바오로 사도는 우리 앞에 놀라운 지평을 열어 줍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에페 1,4-5).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충만한 때의 삶을 엿보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과 비슷하게 ‘품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사랑과 함께 창조되었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빛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 부르심은 우리 존재의 근간과 우리 행복 비결의 하나로서 늘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이는 우리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 의지를 굳건하게 하며 우리를 놀라움에 휩싸이게 하고 우리 마음을 타오르게 합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에게도 그러셨는데, 1953년 9월 21일, 학교 연례 행사에 가던 저는 성당에 들러 고해성사를 드리도록 이끌렸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게 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을 접할 때에, 기도드리는 순간들에서, 우리가 복음의 명백한 증언을 보거나 우리 정신을 열어 주는 무엇인가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낄 때에, 가까운 형제자매가 나누어주는 조언들에서, 질병과 슬픔을 겪는 순간들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방식에서 당신의 무한한 창조성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주도권과 자애로운 그분의 선물은 우리 편에서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선택과 인간 자유 사이의 상호 작용”¹⁾이고, 하느님과 인간 마음 사이의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관계입니다. 성소의 선물은, 우리 존재라는 토양에서 싹을 틔우고 우리 마음을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열어 주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찾은 보물을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하느님의 씨앗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것의 기본 골조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께 사랑으로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알아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백하게 ‘알아보았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진실로, 저는 교회에서 제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²⁾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과견”을 내포한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사명이 없는 성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행복과 충만한 자기실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의 하느님 부르심은 우리를 침묵할 수 없도록 하는 체험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 그리고 요한의 첫째 서간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 본 것, 곧 사람이 되신 말씀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1요한 1-4 참조).

5년 전, 저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에서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의 사명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23항).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저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복음의 기쁨」, 273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공동 사명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인 그분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있다는 체험을 기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자비의 물질적 영적 활동 안에서, 쓰고 버리는 문화와 무관심의 문화와는 반대로 친밀함, 연민, 자애를 반영하는 친절하고 반기는 삶의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소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루카 10,25-37 참조). 그 핵심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마르 10,45 참조).

이러한 선교 활동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과 의도, 계획에서, 또는 우리의 순수한 의지력이나 덕을 실천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깊은 체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을 증언할 수 있고, 이로써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빛을 비추고, 복을 빌어 주고, 활기를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이 사명으로 날인된 이들, 심지어 낙인찍힌 이들로”(「복음의 기쁨」, 273항)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체험에 관한 복음의 표상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두 제자에게서 우리는 “타오르는 마음, 움직이는 두 발”³⁾을 지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갔다’(루카 1,39 참조)라는 주제와 함께 제가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리스본에서 열리는 이번 세계 청년 대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가 마음이 타올라 길을 떠나 서둘러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기를 빕니다.

함께 부름받아 모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저마다 이름으로 당신께 부르셨던 때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세우시어,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며 마귀를 쫓아내도록 파견하셨습니다(마르 3,13-15 참조).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새로운 공동체의 초석을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출신 사회 계층과 직업이 각기 달랐고, 그 누구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파견하신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부르셨던 것처럼, 복음은 또 다른 부르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루카 10,1 참조).

교회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입니다. 이는 그리스말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오도록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한 13,34;15,12 참조) 다른 모든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받아 모인 이들의 집회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양한 성소와 은사와 직분을 따르는 종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 주라는 우리의 공통된 부르심은, 가정을 작은 가정 교회로 가꾸고 사회의 여러 분야를 쇄신하고자 복음의 누룩으로 활동하는 데에 헌신하는 남녀 평신도의 삶에서 전개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찾습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의 예언적 표징으로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남녀 축성생활자의 증언에서, 그리고 설교와 기도와 거룩한 하느님 백성의 친교 증진에 봉사하도록 자리한 성품 교역자인 부제, 신부, 주교를 통하여 전개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찾습니다. 교회 안의 그 어떤 개별적인 성소도 다른 모든 이와 이루는 관계 안에서만 그 참다운 본성과 풍요로움이 충만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일치하지만 구별되는 그 모든 성소가 이루는 성소의 ‘교향악’이며, 하느님 나라의 새 생명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도록 화합을 이루며 ‘밖으로 나가는’ 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총이자 사명: 선물이자 임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소는 선물이자 임무, 새 생명과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번 성소 주일을 위한 기도와 활동의 계획들이 우리의 가정, 본당 공동체, 축성생활 공동체, 교회 단체와 운동 안에서 성소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무관심을 몰아내고 연민과 공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이신 하느님(1요한 4,16 참조)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 살아가게 해 주시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의 자리가 넓혀지도록4) 어디에서든지, 특히 배척과 착취, 가난과 죽음이 도사린 자리에 생명을 가져다주어,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1964년 4월 11일에 제1차 성소 주일을 위하여 마련하신 기도가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의 거룩한 목자이신 예수님,
사도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으니,
젊은이들 가운데 신실하고 너그러운 영혼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이끄시어
주님의 제자요 봉사자로 만들어 주소서.
그 젊은이들이 모든 이의 구원이라는 주님의 목마름에 동참케 하소서.
은 세상의 지평을 그들 앞에 열어 주소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주님의 신비체인 교회를 이루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마태 5,13-14)이 되게 하소서.”

동정 마리아님께서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3년 4월 30일
부활 제4주일
프란치스코

도움을 청하는 노래(시편 54,3-9)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0장 “평화를 구하는 기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평화의 주님! 저희 마음이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5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54, 3 하느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 4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의 말씀에 귀 기울이소서.
- 5 이방인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제 생명을 노리기 때문이니
그들은 하느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지도 않습니다. 셀라
- 6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받쳐 주시는 분이시다.
- 7 저의 적에게 악이 되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진실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 8 제가 기꺼이 당신께 제물로 바치오리다.
주님, 당신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하오리다.
- 9 당신의 그 이름이 저를 구원하시어
제 눈이 원수들을 내려다보겠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내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은 사무엘기 상권 23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은거해 있던 다윗은 크일라 지방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와 추수한 것들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뜻을 여쭙고 크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도울 여력이 없다는 부하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크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다윗이 크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그를 해치기 위해 성읍을 파괴하려 합니다. 몰살당할 것이 두려웠던 크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하자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 나와 자신이 구해준적이 있던 지프 사람들이 있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지프 사람들 역시 사울에게 고발하여 다윗은 더 이상 피해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 과거에 다윗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사울이 두려워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할 때마다 분노의 마음이 들었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끈기 있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서도 마침내 승리하여 왕이 됩니다.

적들의 공격과 미움 앞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12,17-19)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3장 “주님은 나의 목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성모성월의 의미와 유래

유래와 중요성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마리아 공경은 이미 2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4~5세기경 동방교회에서 마리아의 축일이 제정돼 전례적인 공경이 시작됐다.

특히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널리 보급되고 권장됐다.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축일은 모두 600여 가지 이상이 되며 그 중에는 온 세계 교회가 다함께 거행하는 축일과 일부 지방 또는 교구나 수도단체에서만 거행하는 축일이 있다. 아울러 공식적인 교회의 신심은 주로 미사전례와 성무일도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교회는 이처럼 전례적이고 공적인 공경외에도 개인의 공경과 신심 행위를 승인하고 권장해왔다. 목주 기도나 스카폴라, 기적의 메달 등의 개인적인 신심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돼왔다.

성모성월은 먼저 동방교회에서 기념되기 시작했다. 이집트 중심의 콥틱 전례에서 고유한 성모성월을 지내기 시작한 것은 11세기에 와서였다. 콥틱 전례력에서 키악(Kiahk)이라는 네 번째 달은 12월 10일부터 1월 8일에 해당하는데 그 중심은 성탄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기념한 성모성월은 예수 성탄과 그 모친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자들은 마리아와 관련된 기도서로 매일 기도를 바쳤다.

13세기부터 8월을 성모성월로 정한 비잔틴 전례는 8월 15일을 성모 안식 대축일로 기념했는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더 발전하지는 못했다.

서방교회에서는 중세부터 성모성월이 시작됐다. 5월을 성모 마리아의 달로 봉헌하는 관습은 13세기부터 시작됐고 5월과 성모 마리아를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카스티야의 왕 알폰소 10세였다.

로마에서는 성 필립보 네리(1515~ 1595)에 의해 5월을 미약하게나마 성모성월로 지내지기 시작했는데 네리는 젊은이들에게 한 달 동안 성모 마리아에게 꽃다발을 바치거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선행으로 마리아를 공경하도록 했다.

17세기 말엽 마리아 운동과 함께 5월이 성모성월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677년 피렌체 부근의 피에솔레 도미니코회 수련원에서 특별한 모임이 생겼고 이 단체는 5월을 성모에게 봉헌하고 신심을 고취했다. 1701년부터는 한 달 동안 매일 축제를 지냈는데 이때 성모호칭기도를 노래로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화관을 바쳤다.

성모성월 신심행사는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19세기초 벨기에와 스위스, 19세기 중엽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거행됐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성모성월은 예수회의 디오니시가 1725년 베로나에서 「마리아 성월」을 출판하면서 시작돼 로마, 밀라노 등으로 확산됐다. 이 책에서는 집과 일터에서 성모성월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제시돼 있었다.

19세기 중엽에 들어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까지 성모성월이 확산됐고 교황 비오 7세(1800~1823)의 성년 대사 선포와 함께 널리 퍼지게 됐다.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가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선포한 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절정에 달했고 성모성월 행사는 공식적으로 장엄하게 거행됐다.

의의와 신자들의 자세

성모성월 신심은 역대 교황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돼왔다.

성모성월을 기념하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신앙의 모범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한편 하느님의 은총을 성모 마리아를 통해 전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은 매년 이맘때면 성모성월을 기념하는 예절을 특별히 거행한다. 그럼으로써 성모의 모범을 따라 선행과 기도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은총을 얻어주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성모성월신심을 위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전례 예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본당이나 가정마다 있는 성모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말씀의 전례 양식을 빌려 재구성한 성모의 밤 등 각종 행사를 거행하고 묵주 기도를 다 함께 바치는 등의 기도 모임을 갖곤 한다.

하지만 교회는 성모성월 신심, 성모신심이 자칫 발현이나 기적에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보다는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교서를 통해 『성모성월 신심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례에 속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적 예배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고 강조했다. 교황 바오로 6세도 마리아 신심운동이 기적이거나 발현에 치우치지 말고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5년에 발표한 교서에서 『성모성월은 전세계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라며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는 이 기간 동안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빠른 답을 찾는 사람들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요즘 빠른 정답 찾기가 유행인 듯하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을 듣는 상담이 한창이다. 입시 학원도 아니건만 족집게 답을 구하듯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찔하다. 인생 문제에 대해 빠른 답을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우선 TV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낀 것부터 말하고자 한다. 인생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좋지 않다. 상담은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처럼 해야 한다. 상담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영상을 찍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사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을 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과시욕구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받은 상담은 영상으로 두고두고 남아서 사람들의 술 안줏감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담자야 자기과시의 기회이기에 마다할 일이 없겠지만, 내담자들은 후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한 빠른 답을 구하는 것은 뇌가 퇴화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독서하고 사색하면서 천천히 답을 찾는 분들이다. 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다른 사람에게서 쉽게 구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자판기에 매달린 어린아이 같다. 이들은 갈수록 미성숙해지고, 심지어 점괘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의존적인 성격이 되어 자기 문제의 답을 자기가 찾을 수 없기에 상담가나 점괘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비판능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치아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한다. 음식을 잘게 씹어야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치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곱씹어 생각하는 기능을 치아 기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원활해야 지혜가 생기고 상황에 대해 사려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기능이 약해지거나 상실되면 인생길이 어려워진다. 귀가 얇아져서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또한 개인의 의식이 약하다보니 집단적 소리에 쉽게 휘둘린다. 마치 강물에 던져진 지푸라기처럼 소리가 큰 사람이 주도하면 쉽게 걸려든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현혹되기 쉽다. 이들은 영악한 독재자나 사이버 교주의 먹잇감이다. 독재자의 하수인이나 사이버 교주들, 영터리 종교인들의 추종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것,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는 훈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심복인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악이란 비판적 사유의 부재다”라고 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악을 번성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란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1회에 1시간씩 최소 10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것이고, 타인과의 관계가 얽히고설켜 형성된 꼬인 실타래 같은 것이기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보다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외부에서 원인을 발견하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취약점을 노리고 한 방에 해결해주려는 상담가들은 조심해야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말했다.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질문 자체를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답을 찾지 마십시오. 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부동켜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그렇게 찾았던 답이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주문이지만 유념해야 할 조언이다.

함석헌 선생께서는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산다고 하셨다.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은 언젠가는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고 나라를 빼앗길 것이기에 간곡한 심정으로 당부하신 것이다. 법사, 도사, 사이버 교주들이 판치는 작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망가진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 우리 시대의 성인들 - 성 아놀드 얀센 신부(1837~1909), 축일 1월 5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2003년 10월 5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황청에서 열린 아놀드 얀센 신부의 시성식 강론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전에 남긴 말씀으로 시작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온 세상’에 한계가 있었지만,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교통과 매체의 비약적인 발달로 세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직접 혹은 매체를 통해 ‘온 세상’에 갈 수 있게 됐다. 성 아놀드 얀센 신부(이하 얀센 성인)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복음 선포를 위해 앞장 선 성인이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얀센 성인은 1837년 독일 라인강변에 위치한 작은 도시 고흐(Goch)에서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자녀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아버지와 매사에 기도와 함께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한 얀센 성인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체득해나갔다. 특히 본당 보좌였던 루이터 신부는 열정적인 신앙심과 검소한 생활방식으로 어린 얀센 성인의 성소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나 성소의 길은 쉽지만은 않았다. 얀센 성인은 소신학교 졸업 후 뮌스터의 보로메오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당시 주교의 권고로 신학 수업을 중단하고 중등교사자격을 위해 본(Bonn) 대학을 가야만 했다. 1859년 얀센 성인이 교사자격시험에 합격하자 상당한 보수를 제시하며 교사직을 제안하는 곳도 있었다. 22세 청년에게 큰 유혹일 수 있었지만, 얀센 성인은 흔들림 없이 사제의 길을 택했고, 1861년 사제품을 받았다. 얀센 성인은 보홀트에 있는 한 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여기서 얀센 성인은 ‘기도의 사도직’을 만난다. 기도의 사도직은 매일 봉헌기도를 통해 하루 일상의 삶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고 미사성체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일치함으로써 일상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직 단체다. 기도의 사도직을 통해 예수 성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외 선교에 투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더 커져갔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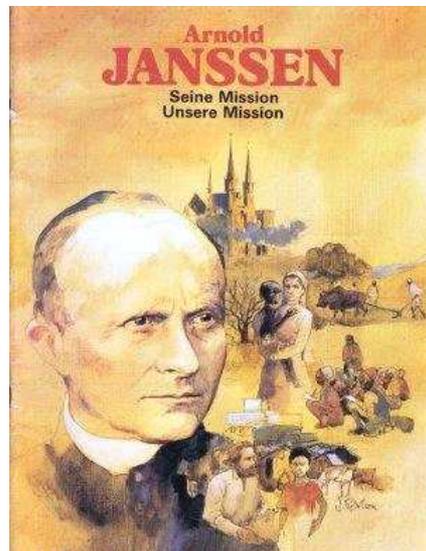
얀센 성인이 평소에 늘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다. 성인이 말하는 복음 선포는 ‘온 세상’을 향해 있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얀센 성인이 주목한 것은 출판이었다. 그는 해외 선교를 위한 잡지를 구상했다. 그러나 아직 문서선교가 보편적이지 않던 당시 사람들은 얀센 성인의 생각을 ‘허황된 꿈’이라 일축했다. 얀센 성인은 주위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잡지 출판 구상을 구체화시켜나갔고, 당시 뮌스터교구장이던 브링크만 주교를 찾아가 허락을 받았다. 마침내 얀센 성인은 ‘예수 성심의 작은 사도’(Kleiner Herz-Jesu-Bote)라는 월간지를 발간했다. 이 월간지는 사람들이 예수 성심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내린 사명, 복음 전파에 투신하는 선교 정신을 일깨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성인은 이 월간지를 통해 선교가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해야하며 지금 우리들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얀센 성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많은 이들의 선교 열망을 불렀다. 이런 열망이 모여 나가자 얀센 성인은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선교 신학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선교 열망

얀센 성인은 주교들을 만나며 선교 신학교 건립 계획을 설명했지만, 쉽게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문화혁명이 극심했던 시기로, 독일 정부는 신학교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 독일 내 종교 활동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얀센 성인은 “새로 서품 받은 사제들이 더 이상 본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면, 해외 선교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봤다. 얀센 성인은 독일에 신학교를 세울 수 없다면 이웃나라에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성인의 뜻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고 1875년 네덜란드 슈타일에 ‘성 미카엘 선교 신학교’를 설립했다. 얀센 성인은 신학교 설립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인쇄소도 시작했다. 출판사업이 신학교와 해외 선교사는 물론 일반 대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그 힘으로 더욱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얀센 성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조차도 이에 반대하며 큰 불화가 생기기도 했다. 사람들은 얀센 성인이 시작한 신학교와 인쇄소가 6개월도 못 버티고 시행착오와 경제난으로 파산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성인은 “새롭게 시작할 때 궁핍과 희생과 고통은 본질적인 것”이라면서 “하느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어 낼 때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 말하며 흔들림 없이 선교사명을 수행해나갔다. 주위의 반대와 만류, 걱정에도 불구하고 얀센 성인의 사업은 성장해 나갔다. 선교 신학교는 요한 바티스트 신부와 요셉 프라이나데메츠 신부를 첫 선교사로 양성, 중국에 파견했다. 출판사도 번창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문서선교에 함께했다. 이렇게 얀센 성인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선교 수도회인 ‘말씀의 선교 수도회’, ‘성령선교 수녀회’와 관상 수도회인 ‘영원한 성체조배 수녀회’ 등 수도회도 창설했다.

얀센 성인은 생전에 모두 5개의 선교 신학교를 설립했고, 지금도 세계 100여 곳의 양성소에서 얀센 성인의 뜻을 따르는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 오늘날 세계 65개국에서 6000여 명의 말씀의 선교 수도회 선교사들과 3500여 명의 성령선교 수녀들과 400여 명의 영원한 성체조배 수녀들이 얀센 성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2003년 성인의 시성식을 주례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얀센 성인은 새로운 매체들, 특히 출판사업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퍼뜨리며 열정적으로 성직을 수행했고, 어떤 장애도 그를 낙담시킬 수 없었다”며 “성인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의 영원한 가치를 증거하며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가 그 길을 충실히 따르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필립보	김경렬	15일	소피	이공종
8일	데시데라토	방은일	16일	요한	홍경영
12일	젬마	김(이)정자 방(조)영자	22일	율리안나 (율리아)	신유경 김효정 방수정
14일	크리스티안	이성원	25일	소피아	이신자
			30일	요안나	윤석순

❖ 5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야곱	정광하(H) 이태호(O)	14일	마리아 도미니카	이혜진(H)
6일	베네딕타	민병진(H)	15일	소피아	박영희(B)
8일	이다	최이다(H)	22일	리타	김남화(B)
12일	젬마	김선주(H)			

❖ 5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7일	34	213	180	245
14일	128	511	188	244
21일	141	210	182	140
28일	145	342	157	144

❖ 5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	복사	커피봉사
7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황혜인 (올리아)	박지현 (미카엘)	3구역
14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매자(베로니카)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황혜인 (올리아)	박준영 (가브리엘)	4구역
21일	청년회	청년회	최승진 (바오로)	박노아 (노아)	요셉 마리아
28일	지방공동체	지방공동체	최승진 (바오로)	이동빈 (루카스)	-

♥ 4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4월 23일 기준)

허선애, 강신행,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신유경, 이종하, 김경미, 최장용, 노수잔나, 허채열

❁ 본당 계좌 입금(4월 23일 기준)

정정숙, 송문규, 이경규, 옥수 Ranitzsch, 박종래

❁ 교구 계좌 입금(4월 23일 기준)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옥,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이공종, 김동수,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옥, 최성자, 이경란, 김영복, 배성우, 남궁춘배, 김진호, 이영원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 23일 월말 경상비 잔액은 19.177,11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순명과 사랑의 정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2. 5월 14일은 Muttertag, 5월 18일은 Vatertag입니다. 5월 14일 공동체에서 꽃을 준비하여 어버이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3. 성모님의 밤 행사는 5월 17일 수요일 만남성당 강당에서 19시에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5월 28일 성령강림 대축일 함머파크에서 본당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1시 미사, 12시 공동체 식사, 13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고 15시에 마치는 일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5월 28일 본당의 날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올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재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월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직장부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이태헌(루카)		
학생부 청년회	매월 셋째 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총무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5 월 행사 표

(성모성월)

천주교 마산교구

2023년도

일	요일	전례일	단체행사	비고(축일, 선종일)
1	월			근로자의 날 휴무
2	화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3	수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비고란 참조 故이재철(아드리아노) 신부 17주기
4	목			정하권 몬시뇰
5	금			어린이날 휴무 금욕
6	토			입하
7	일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첫영성체 교리 구역 봉사자 회의	
8	월			
9	화		꾸리아	
10	수			
11	목			
12	금		2구역 반모임 17시 30분	금욕
13	토		포르투갈 공동체 합동 성모의 밤	
14	일	부활 제6주일	Muttertag 첫영성체 교리 청년회(직장) 기도 모임	노영환, 최재상, 김승태 신부
15	월			
16	화			
17	수		성모의 밤	차광호, 황병석 신부 故정순구(요한) 신부 14주기
18	목		Vatertag	
19	금			금욕
20	토			
21	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첫영성체 교리 요셉, 마리아회 모임 청년회(학생) 기도 모임 사목회	
22	월	부활 제7주간 월요일		
23	화		교육주간	
24	수			
25	목			신정목 신부
26	금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금욕
27	토		첫영성체 교리	부처님 오신날
28	일	성령 강림 대축일(청소년 주일)	본당의 날	
29	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대체공휴일
30	화	연중 제8주간 화요일		최권우 신부
31	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연령회 월례회	박정일 주교 주교 수품일

비고

● 5월 3일: 이윤호, 임효진, 최태준, 최태식, 주효상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 월보 만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